

研究論文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질 고찰

김정경

서강대학교 국문과 대우교수, 고전산문 전공
jinkngkim@gmail.com

- I. 머리말
- II.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규식
- III.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기능
- IV. 맺음말

이 논문은 2010년도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이 글은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간은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화된 글쓰기 방식 가운데 하나였으며¹⁾, 현전하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한글 텍스트 가운데 간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글 간찰²⁾은 문학 연구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물론 고전소설 속에 삽입된 서간에 관한 연구³⁾, 한글 간찰의 문체론적인 연구⁴⁾, 한글 간찰의 규칙에 대한 연구⁵⁾ 등 간찰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꾸준히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1948년 이병기의 『근조내간선』에서 ‘내간체’라는 이름으로 한글 간찰이 처음 소개된 이래⁶⁾, 새로운 자료를 발굴·정리하고 이를 판독·주해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인 역주서가 등장했기 때문에⁷⁾, 문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언간역주사업이 추진되고 그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으니 연구 성과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한글 간찰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조선후기 여성 문학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고자

- 1) 허원기, 「한글 간찰 연구사」, 『국제어문』 32집(국제어문학회, 2004), 309쪽.
- 2) 한글 간찰은 ‘언간’ 또는 ‘내간’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언문 간찰을 뜻하는 ‘언간’은 한글을 비하하는 뜻이 담겨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한글 간찰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여성만이 아니기에 ‘내간’이라는 명칭 또한 옳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글 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위의 논문, 298쪽 참조.
- 3) 김일근, 「고전소설과 언간」, 『고전소설연구』(일지사, 1993); 경일남, 「고전소설의 삽입 서간 연구」, 『어문연구』 28집(어문연구회, 1996).
- 4) 심재기, 「내간체 문장에 대한 고찰」, 『동양학』 5(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김향금, 「언간의 문체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94).
- 5) 홍은진,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1(태학사, 1997); 홍은진, 「축하·인사·상고 간의 언간규식」, 『문헌과 해석』 6(문헌과 해석사, 1999); 홍은진, 「남성 간의 왕복 언간규식 2」, 『문헌과 해석』 7(문헌과 해석사, 1999);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24집(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봉좌, 「조선시대 방각본언간첩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 6) 이병기는 내간을 ‘부녀들끼리 또는 부녀를 상대로 하는 편지’로 이해하면서, 문안, 기별, 초청, 부탁, 호소, 위로, 염정, 소회, 문의하는 사연을 다룬다고 보았다. 허원기, 앞의 논문, 308쪽.
- 7) 황문환,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 연구』 10호(국어사연구, 2010), 75쪽.

한다. 조선후기는 새로운 세계관 혹은 자아관을 가진 일군의 여성들이 등장하여 이전에 비해 활발한 글쓰기 활동을 펼친 시기이다. 그리고 이때 한글 간찰은 여성의 글쓰기 활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⁸⁾ 이에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글쓰기 방식이었던 서간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⁹⁾ 요컨대 이 글의 목적은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들이 쓴 한글 간찰을 문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양식적 특질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해석하는 보다 광범위한 연구의 시론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최근 들어 경험적 서사체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성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서술자의 인식체계, 즉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나름의 해석에는 그의 인식을 구성하는 당시 사회와 문화의 구조가 반영되어 있고, 이것이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 한글 편지에 나타난 서술 방식 및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문화적 전통에 바탕을 둔 인식체계 전반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대상으로는 『선세언적』에 실린 21편의 한글 간찰과 『자손보전』에 실린 19편의 한글 간찰을 택하였는데, 이 두 간찰첩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총 10권의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가운데 17-19세기에 여성들이 쓴 한글 간찰이 이 두 권의 간찰첩에 가장 집중적으로 실려 있기 때문이다.¹⁰⁾ 먼저 『선세언적』은

8) 한글 간찰은 특정 계층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주고받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주종 간에 오고 간 편지나 외교적인 문제를 다룬 편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여성이 발신자나 수신자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히 여성의 삶과 글쓰기에 매우 긴밀하게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남성인 경우는 현종이 잠저에 거처할 때 썼던 인평위 정제현에게 보낸 편지와 상촌 신희의 손자인 동양위 신면이 그 아들인 중화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광서 언간에서 광주가 노비인 광상이에 게 보낸 편지만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다. 김무식,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 편지」, 『인문학논총』 14권 2호(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6쪽; 황문환, 앞의 논문, 76쪽.

9) 허원기, 앞의 논문, 309-310쪽.

10) 물론 『은진송씨 송준길 가문 한글 간찰』에도 17-18세기에 쓰인 여성 한글 간찰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간찰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박부자, 「송준길(宋浚吉) 후손가의 언간첩 『선세언적(先世諺牘)』에 대한 고찰」, 『한국 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홍학회, 「17-18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송준길 가문

고령박씨 가문 부인 11명이 쓴 21편의 한글 간찰을 장정한 간찰첩으로, 한 가문의 7대 200년(1649-1803)에 걸친 한글 간찰을 모은 것이다. 『선세언적』은 11명의 여성이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쓴 편지들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징을 비교적 고르게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손보전』은 지대의 고조비 해주최씨(1591-1660)로부터 흠구의 아내에 이르는 7대에 걸친 신창맹씨 가문 여인들의 국문 수적을 모아 성첩한 것으로 그 내용은 언간을 비롯하여 행장, 조리법, 비망록, 잡기 등 다양하다.¹¹⁾ 이러한 『자손보전』에는 34편의 한글 수적이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중반까지에 해당되는 총 19편의 간찰을 검토하고자 한다.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40편의 간찰로써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전모를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이 전대에 비해 매우 규식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40편 작품의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이 조선후기 여성 간찰의 보편적 양식을 규명하는 데 시론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규식: ‘사연’을 중심으로

한글 간찰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정형화되기는 하지만, 초기의 것이라 하더라도 대개 동일한 형식 및 순서로 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한글 간찰이 ‘발신인, 수신인, 용건’의 세 가지를 갖춰야 하며, ‘편지글이라는 현대적인 뜻 이외에 문서·기록·문학 내지는 의례의 뜻’을 아울러 지닌다고 보고¹²⁾, 일반적인 편지 쓰기 규범을 참고하여 양식을 체계화했다.

이광호는 언간의 형식적 특성을 편지 쓰기의 규범에 따라 (가) 편지를 받을 사람 (나) 의례적인 안부 (다) 주요한 사연(내용) (라) 편지를 끝맺는

여성의 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51편에 해당되는 이 편지글까지 한 편의 논문에서 함께 다루기는 무리라고 판단되어 추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3』(태학사, 2005), 34-35쪽.

12) 김일근, 『언간의 연구』(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11-12쪽.

말 (마) 편지 쓴 날짜 (바) 편지 쓴 사람 순서로 제시¹³⁾했으며, 허재영은 16-18세기까지의 서간 형식을 서두·본문·결말로 크게 나누고, 서두는 기필·시후·안부·자기 안부를, 본문은 전할 사연을, 그리고 결말은 결구·날짜·서명을 포함한다고 정리했다.

홍은진과 전병용은 1860년대를 전후로 편지 형식을 규식화한 언간독류를 따라 서식을 정리했는데, 먼저 홍은진은 간찰이 서두, 알리는 부분, 마무리의 3단계로 구성되며, 다시 서두는 받는 사람의 호칭, 시후, 상대의 안부, 알리는 부분은 보내는 사람의 안부인사, 용건, 그리고 마무리는 정리하는 말, 끝맺는 인사말, 축원, 날짜, 보내는 사람의 서명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¹⁴⁾ 『정보언간독』을 기준으로 한글 간찰의 구성을 분석하고 제시한 전병용 또한 한글 간찰을 서두·사연·결말의 3단계로 나누고, 서두는 호칭·계절인사·안부인사(수신자, 발신자)로, 결말은 결말인사·전언·결구·연월일·서명·추신으로 다시 구분했다.¹⁵⁾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표1

이광호	허재영		홍은진		전병용		
편지를 받을 사람	서두	기필	서두	받는 사람의 호칭	서두	호칭[起筆]	
의례적인 안부		시후와 안부		시후		계절인사	
		자기 안부		상대의 안부		안부인사 (수신자, 발신자)	
주요한 사연(내용)	본문	전할 사연	알리는 부분	보내는 사람 안부인사 용건(하고 싶은 말)	사연		
편지를 끝맺는 말	결말	결구	마무 리	정리하는 말	결말	결말인사	
편지 쓴 날짜		날짜		축원		끝맺는 인사말	전언
				날짜		날짜	결구(끝맺음)
편지 쓴 사람		서명		보내는 사람 서명			연월일

13) 이광호, 「언문 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19권 3호(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95-122쪽.

14) 서두 1) 받는 사람의 호칭 2) 시후 3) 상대의 안부, 알리는 부분 4) 보내는 사람의 안부인사 5) 용건(하고 싶은 말) 마무리 6) 정리하는 말 7) 끝맺는 인사말 8) 축원 9) 날짜 10) 보내는 사람의 서명(署名). 홍은진, 「근대 언간 규범서 ‘정보언간독’에 대하여」, 『숙명어문논집』 제2집(숙명어문학회, 1999a), 137쪽 참조.

15) 전병용,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집(동양고전학회, 2009), 282쪽.

표1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연구자들이 정리한 한글 간찰의 양식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홍은진의 경우 보내는 사람의 안부인사가 ‘알리는 부분’에 속한다는 점이 다른 연구자들과 구별된다. 전병용은 안부인사를 서두에 두고 사연을 따로 분류했지만 다음과 같은 상세한 구분을 통해 발신자 안부의 독특한 위치에 주목하기도 했다. 즉, 직접형(수신자 안부+발신자 안부)과 간접형(수신자 안부+사연+발신자 안부)을 구분하여 수신자 안부와 발신자 안부 사이에 사연이 놓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홍은진과 전병용의 논의에서 발신자 안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한글 간찰에서 발신자 안부의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주된 사연인 편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들이 주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글 간찰에서는 안부가 곧 사연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대체로 서두와 사연이 명확히 변별되지 않아 편지글의 일반적인 형식, 즉 서두·사연·결미의 세 부분으로 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간찰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빠짐없이 다루고, 그 형식적 특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서두·사연·결미로 구분하지 않고 전언, 추신 등의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 연구자들의 간찰 양식을 다음과 같이 종합해보았다.

표2-『선세언적』에 실린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 목록

연번	발신자	수신자	연도	간찰 양식
1	어머니 청송심씨	아들 박정원	1649-1671	① ③④⑤⑧ ⑩⑪
2	증조할머니 청송심씨	증손자 박성한	1670	①②③④⑤⑧⑥ ⑩⑪
3	어머니 해평윤씨	셋째 아들 박심	1670-1674	① ③ ⑤⑧⑥ ⑩⑪
4	할머니 해평윤씨	손자 박성한	1681	①②③④⑤⑧⑥ ⑩⑪
5	부인 청주한씨	남편 박빈	1673년 이전	①②③④⑤⑧⑥ ⑩⑪
6	아내 청주한씨	남편 박빈	1671년 이전	① ③ ⑤ ⑥ ⑩⑪
7	아내 남양홍씨	남편 박성한	1680-1692	①②③④⑤⑧⑥⑦⑩⑪
8	아내 남양홍씨	남편 박성한	1680-1692	⑤
9	아내 해주정씨	남편 박성한	1706	①② ④⑤⑧ ⑩⑪
10	아내 삭녕최씨	남편 박광수	1690-1700	① ③ ⑤⑧ ⑩⑪
11	시아머니 여주이씨	며느리 덕수이씨	1726	① ③ ⑤ ⑥ ⑩⑪⑫
12	시모 여주이씨	며느리 덕수이씨	1727	②③ ⑤⑧⑥ ⑩⑪
13	며느리 안동권씨	시아버지 박성한	1704	①②③④⑤⑧⑥ ⑩⑪
14	할머니 안동권씨	손자 박경규	1760-1768	① ③④⑤ ⑥ ⑩⑪
15	아내 덕수이씨	남편 박춘영		①②③④⑤⑧⑥ ⑩⑪
16	어머니 덕수이씨	아들 박경규	1783-1790	① ③④ ⑧ ⑦⑩⑪⑫
17	할머니 덕수이씨	손자 박중순	1783-1790	① ③④⑤⑧⑥ ⑩⑪
18	며느리 경주이씨	시아버지 박춘영	1760	①②③ ⑧⑥ ⑩⑪
19	며느리 경주이씨	시아버지 박춘영	1761	② ⑤④⑧⑥ ⑩⑪
20	어머니 연산서씨	아들 박중순	1795	① ③ ⑤⑧ ⑩⑪
21	어머니 연산서씨	아들 박중순	1803년 이전	① ③④⑤⑧⑥ ⑩⑪

표3-『자손보전』에 실린 조선 후기 여성 한글 간찰 목록

연번	발신자	수신자	연도	간찰 양식
4	어머니 완산이씨	아들 맹숙주	1704	①⑤③ ⑤ ⑥⑩⑪⑫
5	어머니 완산이씨	아들 맹숙주	1705-1731	③④⑤⑥⑧ ⑩⑪⑫
7	성산이씨	다른 할아버지 손자	1767년 이전	①②③ ⑤ ⑧ ⑩⑪
8	외할머니 달성서씨	외손자	1750	①③② ⑤ ⑧⑥⑩⑪
10	어머니 전의이씨	아들지대나 형제	1774 이전	①③⑤④ ⑧⑥⑩⑪⑫
11	전의이씨	아들 또는 손자	1774 이전	①③⑤ ⑥⑩
13	황도정댁	황씨가 조카	1764 이전	①②③④ ⑧⑥ ⑪
15	삼촌 미망인	조카 서명천	1776 이전	①②④⑤ ⑩⑪
16	삼촌 미망인	조카 서명천	1774	③④ ⑥⑩⑪
17	동생의 아내	아주머니 서종섭	1772	②④ ⑧⑥⑪
18	삼촌의 아내	조카 서명천	1772	③④⑤ ⑧⑥⑩⑪
20	삼촌 미망인	조카 서명천	1769	④③ ⑧⑥⑩⑪
25	달성서씨	달성서씨 뒷사람	1758	② ⑤ ⑧⑥⑩⑪
26	어머니 연암김씨	아들 심원	1775-1764	①③④ ⑥⑩⑪
27	어머니 연암김씨	아들 경린이	1793년 이전	①③ ⑤ ⑧ ⑩
28	어머니 전주이씨	아들 흘구	1815-1843	①③⑤ ⑧⑥⑩⑪
29	어머니 전주이씨	아들 흘구	1815-1843	①③④⑤ ⑧⑥⑩⑪
30	어머니 전주이씨	아들 흘구	1815-1843	①② ⑤④ ⑩⑪
32	어머니 전주이씨	아들 흘구	1815-1843	① ③⑤ ⑩⑪

① 호칭 ② 시후 ③ 수신자 안부 ④ 발신자 안부 ⑤ 용건 ⑥ 결말인사 ⑦ 전언 ⑧ 결구 ⑨ 축원 ⑩ 날짜 ⑪ 서명 ⑫ 추신

이제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 총 40편을 대상으로 이러한 양식이 실제 편지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표2와 표3은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한글 간찰들을 위에서 종합한 한글 간찰 양식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2와 표3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한글 간찰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기술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간찰에서 ②③④⑤⑧⑥의 순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데, 용건(⑤)뿐만이 아니라 시후(②), 수신자 안부(③), 발신자 안부(④) 등의 안부인사 및 마무리 부분의 결말인사(⑥)와 결구(⑧)가 빠지지 않으며, 이러한 특징이 후대로 갈수록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16세기 여성들의 한글 간찰은 17세기 이후의 간찰들에 비해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훨씬 자유로운 것을 특징으로 한다. 16세기

여성의 삶이 조선후기 여성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16세기 여성의 편지글을 검토한 논문에서 최윤희는 이 작품들이 후대의 편지에 비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데 훨씬 솔직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1589년에 죽은 이응태의 묘에서 발견된 부인 문씨의 한글 편지나 순천김씨 묘에서 출토된 신천강씨의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들의 목소리는 후대의 규식화된 그것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는 것이다.¹⁶⁾

한글 간찰 연구에서 16-17세기 간찰에 비해 18-20세기의 간찰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글 간찰의 규식화에 있는데¹⁷⁾, 조선후기 한글 간찰의 특징 및 이를 주고받은 이들의 세계관 또는 인식체계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규식화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한글 간찰이 16-17세기에 기틀이 마련되고 19세기에 와서 그 정형이 완성¹⁸⁾되었다고 할 때 이 논의의 초점은 그러한 정형, 즉 한글 간찰의 규식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간찰의 용건(⑤)뿐만 아니라 한글 간찰의 규식과 상투적 표현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간찰의 용건을 통해 우리가 “실제 여성의 삶”¹⁹⁾을 볼 수 있다는 데에 여러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다. 대표적으로 김무식은 편지의 용건을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나누었는데, 이는 간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말해준다.

편지의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기 위한 잣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즉, ‘안부 및 문안, 부모, 자식, 형제, 부부, 혼사, 상사(喪事), 제사, 병환, 가사, 인생사 및 신세 한탄, 과거 및 벼슬, 해산, 가문, 학문, 언문, 곳 및 책력, 실용 목적’ 등으로 구분 [...] 여기서 ‘안부 및 문안’은 위에 제시된 다른 주제가 없이 오로지 안부만 문의한 것과 하나 정도 다른 주제가 나타난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며 ‘실용 목적’은 주로 위의 주제 외에 특별히 필요한 일을 당부한 경우에 한정해서 통계를 내었다.²⁰⁾

16) 최윤희, 「16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여성문학연구』 8(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2쪽.

17) 허재영, 「한글 간찰(연간)에 대한 기초 연구」, 『사회언어학』 13권 2호(한국사회언어학회, 2006), 260쪽.

18) 전병용, 앞의 논문, 282쪽.

19) “한글 편지에는 실제로 가까운 여성의 모습이 등장한다. 남성이 썼건 여성이 썼건 한글 편지는 구체적인 일상의 모습을 가감 없이 담고 있으며, 따라서 이상이 아닌 실제 여성의 삶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홍학회, 「17·18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송준길 가문 여성의 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70쪽.

20) 김무식, 앞의 논문, 15-16쪽.

위의 논의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여성 한글 간찰의 내용에 주목했기에,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선택·결합되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인용은 『선세언적』에 실린 간찰들의 용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2. 제물은 자세히 받아 다시 오랴 기뻐하노라. 좁쌀은 [꽃재 건네] 두노라 통천서 온 것 안동도 아니 왔고 대구 두 마리 대합은 하나도 아니 왔다. 한 해가 다 가니 더욱 마음이 너무 약해지는구나. 전년이 감동졌과 이리는 셋 들어 있으니 내어 넣어 먹게 단지에 봉하여 간다. 건시 한 접 민어자반 하나 간다.

6. 메주라기와 도요라는 것을 얻어 잡거든 산 사람을 보내려고 하거니와 도요란 새도 있고 물오리도 도요라고 하오니 하인들이 분간하지 못합니다. 나는 물의 오리라곤 하였습니다. 게것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하니 것은 상관이 없으되 기운이 나으셔서 옛날을 생각하오신가 하여 즐겁습니다. 최본이 기척이 없으니 오늘 오지 않으면 유족이를 보내고져 합니다.

8. 이리오니 [종이내 먹을 일이 어렵사오니 장단에 기별하여 아무것이나 가져와야 견디겠습니다. 좁쌀 같은 것이나 있었던가 모르겠습니다. 메주를 여주에서 얻어 왔는데 장이 급하니 즉시 담그자 하오나 소금이 없어 하던 차에 여주 학관댁이 무명을 사달라고 하고 돈을 주어서 가져왔더니 혹 무명을 얻을 일이 있습니까? 무명을 얻어주고 그 돈을 쓰고 싶습니다. 발인을 쉬이 하게 되면 치련이 급하게 되었사오니 미리 조용하여서 하오자 하오니 어떠합니까? (그 소식을) 알고 여주에 기별하고 싶어서 적습니다. [동의 유친으로 딱하였는데 [유친을 두었노라 하오시니 다행합니다. 돈 한 돈이 없으니 무엇을 의지하올까 민망합니다. 내 몸이 이러하오니 더욱 주변을 못하겠으니 가지가지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무명의 대금은 시골 쪽이 적어 낫다 하였습니다. 서울보다 많이 나온 줄은 모르겠습니다.

인용된 첫 번째 편지의 용건은 ‘물건을 받아서 기쁘다, 다른 물건은 아직 받지 못했다, 한 해가 가서 마음이 약해진다, 물건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다음 편지에서 발신자는 ‘하인들과 도요와 물오리를 구분하는 언쟁을 했다, 음식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기쁘다’는 용건을 전하고, 다음 편지의 발신자는 ‘돈이 없다, 내 몸이 편하지 않아 괴롭다, 무명의 가격은 시골이 낫다’는 이야기를 한다. 위에 인용한 것 외에도 『선세언적』에 실린 대부분의 편지글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오가는 물건, 하인

들과의 사소한 언쟁, 집안 형편, 물건의 시세 등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와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그리고 어려운 집안 사정에 대한 한탄과 같은 사적인 심사가 어떠한 구분 없이 한데 이야기되고 있다.

5. 손도 [꼭각기대] 못하게 붓고 삼만은 염병을 하여 오늘 [토열히되] 어른 종이 없어 출막을 못하여 매우 뒤숭숭하여 잠깐 적으며, 네 저고리 하나 네 이바님 핫것 보내니 진걸에게 맡겨 자세히 치보하여 하고 나지 아니하게 하라 하고 부디부디 나다니지 말고 글 배우고 유비장이 권당이니 홀대하여 버릇없이 수욕 말고 후대하여 드리고

8. 내가 살아 있다가 네 아들 낳는 양 볼 줄 어찌 알았으리. 도리어 괴이한 듯싶고 기특 기특하다. 너도 네 형과 한가지로와 과거도 보고 죽어가던 할미도 보고 이들도 보고 곱필 와 다녀가게 하여라.

30. 제갑은 어제 읍내에 가 다녀왔는가 [형제] 오며 보도 가져와 하직하고 가니 이 추위에 어찌 같고 불쌍하고 아연하다. 너를 못 보고 가니 섭섭하다더라. 담배와 장은 보내나 다른 반찬도 못하여 보내니 딱하다. 눈은 조금 낫다.

32. 대흥 기별 들으니 영질 병이 낫다고 하니 기특하다. 신 승지는 상사가 나섰다고 하니 참혹하다. 지난번에 들으니 구슬놈이 병만은 위중하다 하니 놀랍고 불쌍하고 머느리가 매우 걱정하니 심란하다. 양식은 두 말 보낸다. 13일 즉시 오게 하거라. 아기는 두통이 요사이는 조금 나았다.

이는 『자손보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편지를 쓰는 이들은 돈이 없다는 걱정을 하다가, 자신의 몸이 아파 괴롭다고 탄식하고 이내 무명 가격을 셈한다. 이처럼 편지를 쓰는 이들이 갑작스럽게 화제를 돌리는 일은 다반사다. 일정한 기준 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집안의 일들을 모두 적기 때문에, 그 일들이 선택된 기준을 찾기도 어렵고,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연결하는 어떠한 고리도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간찰들에서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조선 후기 여성들의 한글 간찰에서는 개인적인 감상,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문제들처럼 매일 벌어지는 일들과 떠오르는 생각들이 모두 용건이 된다고 하는 편이 옳다.

전혀 다른 종류의 일들이 용건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용건이 될 만한 사건의 종류나 중요성 등을 구분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일들은 전달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용건으로 제시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적혀 있다기보다는 적혀 있기 때문에, 즉 편지의 용건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 듯 보인다.²¹⁾ 그리하여 이렇게 전달된 사건들과 개인적인 감상은 그것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오늘도 이리저리한 일들이 일어났으며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한 어제와 같은 날이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당시에 한글 간찰이 매우 자주 혹은 거의 매일 의례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를 오갔다는 사실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10. 아버님께서 서울 행차를 급히 정하셨다 하니 날이 더우니 어찌 득달하실까 민망합니다. 어제 간 편지의 집 잡기 말씀 자세히 했고 윤도 오라버님 편지에 자세히 하니 의논하여 기별하십시오. 건너 마을이 불안하기로 염려되어 그러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의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어제’도 동일한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처럼 간찰을 주고받는 일은 당대에 매우 보편적이었다. 조선후기 여성들은 특별한 용건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매우 자주 규칙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관습은 궁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출가한 공주와 궁중 사이에 거의 매일 의례적으로 문안편지가 왕래²²⁾하던 것이 사대부 가정으로 확대되어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 부녀 사회의 서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궁중에서 王子女와 宮人들이 왕과 왕비에게 조석문안을 못 드릴 경우, 간단한 편지로 대신하였던 것이 시작이 되어 일정한 文套로 형식화된 것이다. 출가한 공주와 왕비의 친가와 都下 外命婦들이 이를 본뜨고, 그것이 확대되어 사대부 가정에서 시행되어, 특히 신부의 경우에는 필수적 의례로 극히 근세에까지 계승되었던 것이다. 결론해서, 問安紙는 궁중과 민간에서 手下者가 手上者에게 올리는 의례적인 안부편지인데, 일정한 규칙에 준하여 쓰는 주로 부녀사회의 서간이다.²³⁾

21) Hayden White 저, 전은경 역, 「리얼리티 제시에서의 서술성의 가치」,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솔, 1997), 188쪽.

22) 위의 책, 33쪽.

23) 김일근, 앞의 책, 35쪽.

이렇듯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해 의례적으로 주고받았던 한글 간찰에서 중심 주제라 할 만한 것이 매년 존재할 것 같지는 않으며, 실제로 주제라 할 만한 내용과 용건들이 선택된 기준 또는 용건들 간의 결합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편지를 쓰는 이가 다만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전달한다는 사실, 무엇보다 간찰마다 반복되는 “②③④⑤⑧⑥”의 규칙적인 배열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규칙을 기의로,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표로 볼 수 있으며, 용건(⑤)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그것이 놓인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²⁴⁾ 다시 말해서 “②③④⑤⑧⑥”의 규칙적인 배열 가운데 놓여 있는 용건(⑤)의 위치를 기의로, 그리고 그 용건의 내용을 기표로 본다는 것은 용건의 내용이 용건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편지의 사연, 즉 무엇을 전달하는가에 관심을 갖는 우리와는 다르게 조선후기 한글 간찰을 주고받던 이들은 이러한 양식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표현된다는 데에서 편지글의 의미를 찾았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한글 간찰의 서술자들이 이러저러한 사연을 적는 까닭은 간찰의 일정한 규칙을 지키기 위함이며, 일정한 규칙은 곧 지속성과 일관성을 의미함으로써 편지를 쓰는 오늘 역시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진 ‘평범한 하루였다’는 사실을 수신자에게 전한다.

24) Hayden White 저, 앞의 책, 190쪽 참조.

III.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기능: ‘유무 보고’와 ‘결구’를 중심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한글 간찰의 내용과 구성은 대체로 동일하다. 한글 간찰뿐만 아니라 한문 간찰의 경우에도 개별 작품의 특징을 찾아내기 힘들 정도로 간찰의 구성과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가령 한문 간찰을 쓸 때 발신자는 각 구성요소마다 제시된 한 구 혹은 두 구를 골라 연결하여 한 통의 편지를 완성한다.²⁵⁾ 즉, 편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학자들도 쉽게 『한훤차록』, 『간식유편』 등의 편지교본들을 통해서 봉투부터 내용까지 한 통의 편지를 온전히 쓸 수 있었으며²⁶⁾, 이와 같이 규칙화된 방식이 한글 간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한글 편지의 투식을 모은 ‘언간독(諺簡牘)’은 겹봉투를 쓰는 방법, 받는 대상에 따라 격식을 갖추는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수신자와 발신자의 신분과 관계, 그리고 보내는 절기와 상황에 따라 구분된 37종의 편지 서식과 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1860년으로 추정되는 경신년 『정보언간독』, 1886년으로 추정되는 병술년 치동 간행 『정보언간독』, 그 밖에도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는 방각본 『증보언간독』, 『언찰투』, 『언간독』, 필사본 언간독류와 『문권규식』 등을 통해²⁸⁾ 조선후기에는 편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학자들도 쉽게 한 통의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²⁹⁾

25)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장서각』 9집(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143쪽.

26) 위의 논문, 135쪽.

27) “諺簡牘”은 한글 편지의 투식을 모은 책으로 사람들에게 편지 쓰는 형식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구성 및 체제는 37종의 편지 서식과 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지 서식마다 앞에는 겹봉투를 쓰는 방법을 실은 다음에 받는 대상에 따라 격식을 갖추고 있다. 구성은 상편과 하편으로 되어 있다. 상편에서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답장의 서식으로부터 아버지, 조카, 삼촌, 아우, 형, 외삼촌, 장인 등 주로 일가친척 중 남성에게 보내는 서식과 답교날, 화류, 관등날, 복날, 가을에 놀자고 청하는 편지 서식,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인사를 하는 편지 서식을 볼 수 있다. 또한 상고 간의 왕래 편지 서식과 물건을 받지 않을 때 쓰는 서식 등 실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하편에서는 신부 문안편지와 답장을 시작으로 시삼촌, 시삼촌댁, 시아주버니, 시누이, 동서, 새 사돈, 사위, 시어머니 등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서식이 문안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조 간의 편지 서식으로는 조장, 위장이 있으며, 편지 서식의 끝은 고목의 서식이 있는데, 이것은 지체가 낮은 하인, 또는 관속이 상전에게 올리는 편지를 말한다.” 홍은진, 앞의 논문(1999a), 151-152쪽.

28) 허재영, 앞의 논문, 268-270쪽.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한글 간찰의 특징적인 점이 동일한 요소들의 끊임없는 반복에 있음을 말해준다. 가령 서두의 호칭, 계절인사, 안부인사, 결말인사, 결구 등의 상투적 표현³⁰⁾이나 반복되는 서식과 같은 것 말이다. 따라서 한글 간찰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상투적인 내용과 형식의 반복적인 오고 감, 즉 간찰의 규범화된 양식에 주목해야 한다. 분명 간찰의 규범화된 양식은 세계에 대한 당대인들의 체험과 이해의 결과물일 것이므로³¹⁾ 일견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오고 감이 어떠한 의미를 구현하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글 간찰에서 이야기를 특징짓는 일반 요인들 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주제, 잘 구분되어 있는 시작 · 중간 · 결말, 갑작스런 사건의 전회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³²⁾ 한글 간찰은 언제나 이전 편지글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늘 할 말을 다하지 못한 채 끝난다.

『선세언적』

1. “여러 날 기별 못 들으니 어찌 있는가 걱정이 그지없어 하노라. 금성에서 두 번 한 편지를 보고난 지 오랜 편지라 반갑기가 없어 하노라.”
2. “요사이는 기별도 못 듣고”
3. “요사이 일절 기별 못 들으니 답답 민망했는데 하인 오는 날 적은 것 보고 본 듯 반기며 편이 들어가 있으니 기뻐하노라.”
“열아흐레 날 스무 날 연하여서 가거늘 편지했는데 갔느냐.”
4. “요사이 기별 못 들으니”
5. “기별 몰라 사모 극하옵더니 급창이 와 적으신 것을 보고 반갑사오며”
6. “먼저 편지 보오니 아버님 이질이 극중하오시다 하옵고 그 후 기별을 몰라서 밤낮 갑갑 민망하오니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하였는데 사람이 와서 (당신의) 편지를 보고 잠깐 웬만하시다 하오니 기쁨이 그지없사오며”
7. “기별을 몰라 주야로 답답하고 용심하던 차(에) 초닷새날 온 (편지를) 적으셨으니”
9. “창농이 온 후 날포 기별 몰라 염려 깊사오며”

29) 김효경, 앞의 논문, 135쪽.

30) 전병용, 앞의 논문, 282-283쪽.

31) 우리는 이를 “언급되는 사건의 직선적 복사가 아니라 이를 의미로 대체”하는 작업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Hayden White 저, 앞의 책, 178쪽.

32) 위의 책, 186쪽.

10. “…… 기별 몰라 합니다.”
11. “적은 글씨 보고 어어쁜 얼굴 대하는 듯 든든 반기며 이렇게 아득히 있어 즉시 보지 못하니 섭섭하며 답답하기를 어이 다 적으랴.”
12. “새해에 (부모님) 모시고 만복한 일 알고자 하며 해가 바뀌고 여러 날 되었으되 기별도 듣지 못하니 답답 섭섭하고”
14. “간 지 여러 날이 되니 섭섭하고 못 잊겠더니 글씨(편지) 보고 본 듯 반가우며 좋게 있으니……”
15. “행차들 떠나오신 후 기별을 모르오니……”
17. “날이 갈수록 소식이 다시 없으니 답답하여 기다리며 여기의 편지는 연하여 보았을 것이니 멀리서 염려하는 일 도로 민망하다.”
18. “저번 종이 오는데 하서(下書) 받들어 보옵고”
19. “문안 아뢰옵고 사람이 와 하서 받아 보고”
20. “지난달 십일과 이십일에 편지 석 장을 초사일 낭청집으로부터 얻어 보고 답장을 부치고 또 편지를 기다렸더니 지난달 22일 편지가 무슨 장계 편인지 십칠일 만에 편지 얻어 보니 신기하고 반갑다”

『자손보전』

5. “가는 사람이 없어 소식도 잘 모르니 답답 염려가 끝이 없으며 왕래 편지도 없으니 다른 일은 담지 아니하고 언문 쓰기는 배우지 아니하였으나 답답하지도 아니하나.”
8. “달포 네 글씨도 보지 못하니 답답 그림더니 일원 오기를 적은 것을 보고 반가우나”
10. “간 후 기별 모르니 갑갑하게 생각했는데 이리로 온 편지 받아”
18. “이십일 즈음 편지를 보고 반갑고”
20. “온 여름 가을 기별을 모르니 답답 섭섭하기 가없으나”
25. “해가 바뀌었는데 달포 문안을 몰라 하정의 섭섭하며”
30. “글씨 보고 반기며”
32. “지난번 글씨 자세히 보고 탐탐히 반갑기 측량없으며”

위의 인용문은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의 호칭(①)과, 시후(②) 또는 수신자 안부(③) 사이에 나오는 발화들을 정리한 것이다. 전병용은 수신자 안부를 검토하면서 ‘답장의 경우’에 ‘유무³³⁾ 보고’ 같은 상투적 표현이 덧붙여간다는 점을 지적했는데³⁴⁾, 위에 인용한 것을 ‘유무 보고’라 할

33) ‘유무(有無)’는 원래 ‘消息’을 뜻하다가 ‘소식을 전하는 簡札’로 다시 ‘간찰’이란 뜻으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34) 전병용, 앞의 논문, 304쪽.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유무 보고’와 같은 발화들은 간찰의 기본 형식으로 독립하여 분류·검토된 적은 없다. 하지만 이들 내용은 대부분의 간찰에 쓰여 있는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한글 간찰에서 지난 편지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발신자들은 편지를 쓰면서 지난 편지를 잘 받았다, 소식이 오간 지 오래다 등과 같은 편지 행위 자체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는다.

이러한 발화는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징한다.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 보낸 편지를 잘 받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을 상대방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이 편지를 주고받는다든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즉, 발신자의 ‘유무 보고’는 야콥슨이 ‘교감적 커뮤니케이션’이라 명명한 기능을 수행한다. 야콥슨에 따르면 인간의 발화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반사적으로 소통 주체들 간의 상징적 협약을 확인³⁵⁾시키는 데, 한글 간찰에는 앞서 정리한 표현들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한글 간찰의 ‘결구’ 역시 ‘유무 보고’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앞 장에서 한글 간찰의 발신자와 수신자는 특별한 용건 없이 거의 매일이라 할 만큼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다곤 했는데, 이처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면 서도 이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할 말을 다 전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한다.

1. (사연은) 그지없으나 여러 사람을 거치기 때문에 이만 적노라.
2. 그지없으되 쓰지 못하여 이만.
3. 이 사람 즉시 사람 간다고 편지를 맡으니 이만(쓴다).
4. 늦어 이만 적는다.
5. 오늘 사람 간다 하오니 바쁘니 이만.

발신자들은 언제나 편지의 말미에서 할 말을 다하지 못했지만, 바쁘고 정신이 없어 이만 줄인다는 표현을 빼놓지 않는다. 늘 말하던 중에, 편지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지금 막 떠나려고 하기에 할 말을 하지 못한 상태로 편지는 마무리된다. 즉, 한글 간찰에서 글쓴이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편지글을 멈춰버린다. 얼핏 매우

35) Zizek Slavoj 저,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웅진 지식하우스, 2007), 24쪽.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며 힘들게 편지를 전하는 것 같다. 편지를 보내는 이는 못다 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지금은 편지를 전할 이가 떠나야 하기에 모두 다 적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편지는 그리 오랜만에 전하는 편지가 아니다. 또한 구구한 안부나 사연은 이미 다 말한 후이며, 급히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가 남은 것 같지도 않다. 때문에 지금 다 못 하니 다음에 하겠다는 말, 즉 “그지없으나 쓰지 못하겠다”는 언술의 메시지는 다음에 또 편지할 구실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보다 적절할 듯하다.

그러므로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지만 끝맺을 수밖에 없다는 간찰의 결말은 불완전한 종결, 결론을 지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결짓는 것에 불과한 결말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³⁶⁾ 물론 이때 간찰의 종결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³⁷⁾ 즉,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를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한글 간찰의 결구 역시 “교감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찰의 서두와 말미에서 “교감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하는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은 한 통의 간찰을 그것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볼 수 없게 한다. 앞서 인용한 ‘유무 보고’와 ‘결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글 간찰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과 끝이 불분명한, 길고 긴, 끝없는 편지의 흐름 속에 끼워진 것이다. 편지의 처음과 끝이 표면적으로는 존재하지만, 모든 편지는 언제나 이전 편지의 답장이라는 점에서 이 순환에는 시작도 끝도 없다. 요컨대 조선시대의 한글 간찰은 소통행위 그것 자체에 대한 반성적인 언술을 되풀이함으로써, 끊임없이 상호 간에 연락이 오고 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서술 양식이 스스로 드러내는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가. 앞에서 검토한 대로 규격화된 양식에 따른 메시지의 결합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답장의 교환이라는 한글 간찰만의 구조와 질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글 간찰이 재현하는

36) Hayden White 지, 앞의 책, 184쪽.

37) 이 글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불완전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리얼리티를 구현해내는 개념들이 창출한 독특한 산물로 취급하고자 한다. 위의 책, 184쪽.

세계 그리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실제 현실이 아니라 관념적인 규칙이며, 그것이 하나의 소통행위라는 사실을 반성적으로 주장하는 언술이다. 간찰을 주고받는 행위는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존재론적으로 세계와 분리된 하나의 관념적인 정신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³⁸⁾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관념의 세계에서 시간은 대상이 변하고, 발전 혹은 소멸하는 하나의 원리로 이해되지 않으며 반복되는 의사소통 행위 외부에 존재한다.

한글 간찰의 형식적인 측면 역시 세계와 시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드러내는데, 한글 간찰에는 편지를 작성하는 순서, 여백을 이용하여 각 부분이 혼동되지 않게 본문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다 정해져 있으며, 이를 성첩하는 데에도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성첩하여 언간을 수록하는 순서는 크게 발신자와 수신자 두 가지 기준으로 정해진다. 직계인물의 세대 순으로 배열하되 각 세대 내에서는 ‘장인-장모-손위형제-직계인물-처’의 순서, 즉 관계의 상하에 따라, 그리고 동등한 관계에 서는 남성에서 여성의 순서로 수록한 것이다. 한 발신자의 편지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다시 수신자별로 분류하였다. 수신자의 경우도 관계의 상하, 남성에서 여성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³⁹⁾

이처럼 한글 간찰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것을 성첩하는 방식은 이미 정해진 체계를 따른다. 그리하여 한글 간찰의 유형화된 규칙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또한 이처럼 체계적으로 유형화되어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상황에 따른 태도와 반응은 규준에 따라 정해져 있을 것이며, 이처럼 정해진 규칙이 개인의 행동과 감정을 결정할 것이다.

38) Gary Gutting 저, 홍은영·박상우 역, 『미셀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백의, 1999), 200쪽.

39) 박부자, 「宋浚吉 후손가의 언간첩 『先世謄牘』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한국고전여성문학회), 172쪽.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을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글 간찰이 점차 규식화되며, 이는 한글 간찰을 주고받던 이들이 세계를 엄격하게 유형화된 체계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한글 간찰이 규식화되었다는 것은 발신자의 지위 혹은 신분 그리고 수신자와의 관계가 간찰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글 간찰에서 발신자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과 수신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에 맞는 규식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 주체의 의식, 감상 등이 아니라 정형화된 행위, 반응의 패턴이 존재하며,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의 삶은 체계적인 질서 속에 정해진 자신의 자리를 찾고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 간찰의 규식화는 엄밀하게 양식화된 조선의 유교 질서를 재현하는 동시에, 누구나 그러한 규식을 사용하여 한글 간찰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글 간찰은 점차 규식화되었으나, 한글 간찰의 사용자는 점차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부터 등장하는 방각본(坊刻本) 『언간독』의 존재는 언간 사용이 대폭 일반화된 양상을 여실히 보여준다.⁴⁰⁾ 언간독은 성별·나이·신분에 따른 어휘·표현·투식 등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는데, 이것은 모든 이들이 쉽게 편지를 쓰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모든 관계가 위계적으로 분류되었으며,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황과 지위에 따라 표현 형식과 내용이 정해져 있음을 드러내는 한글 간찰이 한편으로는 글쓰기 행위의 보편적인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를 결과로 가져왔다는 사실은 모순적이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과 모든 이들이 위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일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의의를 말해준다고 보았다.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규식은 곧 그녀들이 자신의 삶을 유교적 질서로 틀 지워진 체계의 구성요소로 의미화했음을 말하는 한편, 간찰의 보편적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0) 황문환, 앞의 논문, 80쪽.

성별 간, 신분 간의 엄격한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의 이러한 결론은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수신자의 성별 및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른 내용과 형식상의 특징을 규명하고, 앞서 간략하게 언급했던 조선전기 한글 간찰과의 차이 점을 드러내는 작업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보편적 특질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작업들을 추후의 과제로 남겨 연구를 이어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경일남, 「고전소설의 삼입서간 연구」. 『어문연구』 28집, 어문연구회, 1996, 131-150쪽.
-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연구」. 『민족문화논총』 24집,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1, 29-56쪽.
- 김무식, 「조선조 여성의 문자생활과 한글 편지」. 『인문학논총』 14권 2호,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1-25쪽
- 김봉좌, 「조선시대 방각본언간첩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일근, 『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 , 「고전소설과 언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 김향금, 「언간의 문체론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효경, 「18세기 간찰교본 『簡式類編』 연구」. 『장서각』 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133-154쪽.
- 심재기, 「내간체 문장에 대한 고찰」.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5, 71-84쪽.
- 이광호, 「언문 간찰의 형식과 표기법」. 『정신문화연구』 19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95-131쪽.
- 전병용, 「한글 간찰의 상투적 표현 고찰」. 『동양고전연구』 37집, 동양고전학회, 2009, 279-306쪽.
- 최윤희, 「16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여성의 자의식」.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86-106쪽.
- 허원기, 「한글 간찰 연구사」. 『국제어문』 32집, 국제어문학회, 2004, 297-324쪽.
- 허재영, 「한글 간찰(언간)에 대한 기초 연구」. 『사회언어학』 13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06, 257-277쪽.
- 홍은진,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1, 태학사, 1997, 84-97쪽.
- , 「근대 언간 규범서 ‘정보언간독’에 대하여」. 『숙명어문논집』 제2집, 숙명어문학회, 1999, 133-158쪽 참조.
- , 「축하 · 인사 · 상고 간의 언간규식」. 『문헌과 해석』 6, 문헌과 해석사, 1999, 69-86쪽.
- , 「남성 간의 왕복 언간규식 2」. 『문헌과 해석』 7, 문헌과 해석사, 1999, 84-100쪽.
- 홍학회, 「17-18세기 한글 편지에 나타난 송준길 가문 여성의 삶」.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67-103쪽.
- 황문환,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 연구』 10호, 국어사연구, 2010, 73-131쪽.
- Gutting, Gary 저, 홍은영 · 박상우 역, 『미셀 푸코의 과학적 이성의 고고학』. 백의,

1999.

White, Hayden 저, 전은경 역, 「리얼리티 제시에서의 서술성의 가치」.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Zizek, Slavoj 저, 박정수 역, 『HOW TO READ 라캉』. 웅진 지식하우스, 2007.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을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글 간찰이 점차 규식화되며, 이는 한글 간찰을 주고받던 이들이 세계를 엄격하게 유형화된 체계로 이해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이고자 했다. 한글 간찰이 규식화되었다는 것은 발신자의 지위 혹은 신분 그리고 수신자와의 관계가 간찰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한글 간찰에서 발신자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자신과 수신자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그에 맞는 규식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 주체의 의식, 감상 등이 아니라 정형화된 행위, 반응의 패턴이 존재하며, 같은 맥락에서 한 개인의 삶은 체계적인 질서 속에 정해진 자신의 자리를 찾고,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 간찰의 규식화는 엄밀하게 양식화된 조선의 유교 질서를 재현하는 동시에, 누구나 그러한 규식을 사용하여 한글 간찰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한글 간찰은 점차 규식화되었으나, 한글 간찰 사용자는 점차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의의를 말해준다고 보았다. 조선후기 여성 한글 간찰의 규식은 곧 그녀들이 자신의 삶을 유교적 질서로 틀 지워진 체계의 구성요소로 의미화했음을 말하는 한편, 간찰의 보편적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별 간, 신분 간의 엄격한 경계를 흐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투고일 2011. 11. 4.

수정일 2011. 11. 24.

게재 확정일 2011. 11. 29.

주제어(keyword) 언간(eongan, old typed Hangul letters), 상투어구(conventional expression), 개체화(individualization), 근대성(modernity)

